

쌍용차 노사 대화 물꼬 노동위 “다행 또 다행”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교섭이 2천 71일, 즉 5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쌍용차 노사가 1월 21일 정리·징계 해고자 등에 관한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에 따라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에서도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노동위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고 또 다행”이라며 “복직 교섭 결말이 설날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쌍용차 정리해고는 ‘해고는 살인이다’는 커다란 화두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했던 업이었다”며 “정리·징계 해고자 187명과 114억 규모의 손해배상과 가입료, 정리해고 이후 숨진 26명 노동자에 대한 지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등 4가지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실무교섭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해고자들을 포용하는 마음을, 해고자는 노사 갈등에 대한 사족의 경계심을 풀어주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노사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생명윤리협 원전해체硏 설립

생명존중 국제세미나 추진도

올해 불교생명윤리협회(대표 흥선)의 움직임이 바빠질 전망이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원전해체기술연구소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대학원 설립구상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대학원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불교생명윤리협회는 이외에도 생명존중국제프로토콜 제정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또 7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생명학교를 개설, 저비와 생명부터 채식, 동물복지, 탈핵과 관련한 생명윤리 등 불교생명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월정사와 직지사 등에서 월 1회 개최된다.

배현진 기자

“출재가 함께 보살도 행해요”

40주년 맞은 한국불교연구원 ‘신불교 운동’ 선포

“출·재가 열린 조직 개편” 출가 관경·재가 관발 결사 유마정사는 실참 공간 변경

공동연구·공동수행·공동참여를 기치로 한 사부대중의 새로운 결사운동이 전개된다. 40년간 재가불교운동을 펼쳐온 한국불교연구원이 전개하는 새 결사 ‘신불교 운동’이 그것이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리영자)은 1월 21일 서울 연구원 법당에서 공동 연구, 공동 수행, 공동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신불교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신불교운동’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수행하며, 바르게 행함으로써 대승보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연구실장에 태경 스님이 위촉됐다.

‘신불교운동’ 전개에 위해 그동안 전국 구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불교 연구원은 열린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운영체계를 불교연구실, 열린유마선원, 전국구도회로 분리해 연구와 수행, 사회참여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구실 불교연구실은 공동연구의 장으로 개방한다. 기존의 <불교연구> 학회지 발간을 이어가는 한편 실참에 필요한 2



한국불교연구원 40년을 기념한 신불교운동 선포식에서 리영자 원장(사진 왼쪽 세번째)과 연구실장 태경 스님(사진 네번째) 등 임원들이 불법총포를 서원하고 있다.

년 기초과정과 1년 전문과정의 강좌가 개설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련시설에 불과했던 광주 유마정사를 열린유마선원으로 전환해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수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선원장을 선임하고, 교리연찬 과목을 수강한 불자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열린유마선원의 특징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결사 방법이 다른 점이다. 유마선원에서는 재가자 결사는 관발결사와 정엄결사로 입재는 법화삼매참법, 회향은 화엄정행결사로 진행된다. 출가자 결사는 관경결사로 전통방식으로 산혈기간 경론을 강경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단기출가과정도 함께 개설된다.

40년 간 한국불교연구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국구도회는 청년조직인 문수회가 더해져 대승보살실참회로 확대된다. 대승보살실참회 산하에는 서울·대구·부산·대전구도회를 비롯해 문수회,

교사불자회, 무량감로회, 연화회, 지장회로 구성된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청년부를 중심으로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도회가 이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리영자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은 “이기영 박사의 원력을 계승해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수행하며, 바르게 행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출재가가 모두 행복한 불교적 삶을 현실화하는 운동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연구원은 1974년, 기복불교와 출가자 중심의 불교에서 재가자들의 신행불교, 지성불교를 기치로 이기영 박사를 비롯한 재가불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산하에 서울구도회(74년), 대구구도회(76년), 부산구도회(77년), 대전구도회(99년)가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그 뜻을 이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회와 설법’ E-Book으로 복간

조계종 포교원, 전자 메일로 올해부터 일선 제공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전국사찰 조계종 스님들에게 매일 이메일로 설법문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포교원은 “앞으로 매일 설법문안 3가지 이상을 메일로 스님들께 발송할 예정이며 특별법회 진행 메뉴얼과 유용한 포교 자료 등을 제공해 법회 및 포교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은 1995년부터 월간 <법회와 설법>을 간행해 무료로 보급해 오다가 2010년 5월부터 ‘월간 법회와 설법(www.jogyebook.com)’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며 2011년 1월 이후 잠정적으로 발간을 중단한 상태였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사찰에서 월간

<법회와 설법>의 복간을 요구해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한 개방형 이북(e-book) 형태로 <법회와 설법>을 간행해 보급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book <법회와 설법>은 매일 시기와 중요사안에 맞춰 전자 북 형태로 설법 문안을 제공한다. 또한 설법자료를 ‘아래 한글’로 제공해 설법 및 행사 진행시 상황에 맞게 가공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조계종 스님이라면 누구나도 비용 지불 없이 받아 볼 수 있으며 설법문안 뿐 아니라 특별법회 진행 메뉴얼과 각종 발원문도 제공한다. 설법문안을 받아보려면 메일 주소를 포교원에 알려주면 된다. (02)2011-1892~4

이나는 기자



낙단보 마애불 관리를 맡은 마애사 주지 원종 스님이 1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마애불 주변의 성역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손문철 대구지사장

‘낙단보 마애불’ 신행 공간 없어지나

마애사 주지 원종스님, 22일 기자회견… “성역화 필요하다”

2010년 4대강 사업 낙단보 구간에서 발견된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경북 유형문화재 제432호)의 신행공간이 철거 위기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임명해 불교 이모터콘으로 오는 5월 출시 예정이던 동자승 ‘반야와 친구’ ‘절냥이’의 행복 이야기를 움직이는 이모터콘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포교원은 청소년포교 홈페이지(www.sunjae.or.kr)를 개설해 유투브 UCC, 선재 애니메이션 및 포교 디지털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시정각 자료를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다가가기 위해 권진영 동대부속여고 교법사와 권주미 학생(극동대 미디어 콘텐츠과) 등이 참여했다”며 “포교원은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및 교보재를 계속 개발 보급해 청소년 포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 역시 마애불 정비와 성역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원공사 낙단보관리사무소는 ‘기도시설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주지 원종 “현재 있는 시설물은 종교 행사 및 부처님 참배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임에도 강제 철거를 명령하는 처사는 명백한 종교탄압적 발상”이라면서 “마애불 발견 당시 종단과 정부에서 약속한 마애불 성역화 불사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오 늘부터 10만배 기도 정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원종 스님은 최상준 낙단보 관리소장, 고두석 4대강관리팀장, 서용환 의성군의회 의원, 김영한 의성군 문화재관리과장 등과 함께 좌담회를 가졌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소년 법회용 미디어 콘텐츠 보급한다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법회용 종합 미디어 콘텐츠 개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어린이·청소년 법회용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청소년 법회 운영사찰과 학교에 보급한다.

포교원이 개발한 콘텐츠는 △청소년 법회용 종합 미디어 콘텐츠 △꿈을 찾아가는 선재 청소년 뉴미디어 콘텐츠 △반야의 야단법석 이모터콘이다.

청소년 법회용 종합미디어 콘텐츠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법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교문화, 신행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자기 주도형 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았다.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뉴미디어 콘텐츠는 유투브를 주제로 역경극복을 통한 자기 성장 그리고 나눔의 감동을 담은 UCC



포교원이 보급하는 ‘꿈을 찾아가는 선재’ 콘텐츠 DVD 표지.

동영상을 담고 있다. 또한 ‘꿈을 찾아가는 선재’를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 오는 2월 선재의 7개 스토리를 플래시무비 애니메

이션 형식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반야의 야단법석 이모터콘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에서 활용 가능한 불교 이모터콘으로 오는 5월 출시 예정이던 동자승 ‘반야와 친구’ ‘절냥이’의 행복 이야기를 움직이는 이모터콘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포교원은 청소년포교 홈페이지(www.sunjae.or.kr)를 개설해 유투브 UCC, 선재 애니메이션 및 포교 디지털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시정각 자료를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다가가기 위해 권진영 동대부속여고 교법사와 권주미 학생(극동대 미디어 콘텐츠과) 등이 참여했다”며 “포교원은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및 교보재를 계속 개발 보급해 청소년 포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대행 공고

「중헌종법 제46조 2항 제①항 총무부장은 총무원장을 보좌하며, 총무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의거 총무부장 영빈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선출시까지 총무원장 대행함을 공고합니다.

12월 8일 확대간부(총회의회)회의를 통해 법인이사회에서 후임 총무원장 선임방법과 투표방법을 논의하기로 결의하였으나, 12월 23일 법인이사 4명이 결탁하여 종도들을 배제하고, 중헌종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한대행을 선임 하였으며, 탈법과 편법이 자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중정무불스님은 교시도 아닌 교지를 통해 총회를 해산하고 묘각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승인하는 불법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총무원장권한대행으로 선임된 묘각스님은 독선과 독주로 파행적 중단사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급기야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전임 간부스님들과 여러 종도스님들을 권한대행 선임의 부당함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종행위로 간주하여 제적처리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탈법과 편법으로 선임된 총무원장권한대행 묘각스님은 중헌종법을 무시하고 선임되었으므로 원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2015년 1월 5일 임명된 감찰원장 종호(상목)스님, 중정사서실장 현각스님, 재무부장 혜연스님, 1월14일 임명된 포교원장 고봉스님, 사회부장 성진스님은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1월 20일 스님 17명에 대한 제적공고 또한 제적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였기에 무효임을 공고 합니다.

이후 묘각스님의 중무 행정에 관한 어떠한 결론도 인정할 수 없음을 공고 합니다. 묘각스님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존 법인정관에 명시된 제3장 임원법과 제4장 총회법에 의거 총회를 거치지 않은 법인이사는 법인이사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정관 개정 또한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면,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종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종도 여러분!

묘각스님의 독선적인 파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종호(상목, 김상대)스님이 본 종단에 입증 보름만에 원로스님을 비롯한 17명의 스님을 제적 처리하는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종도 스님들은 일심 단결하여 종단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중앙총의회구성 및 원구성, 총무원장후보 및 선거 일정등은 추후(2월 3일)에 공고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대행 영빈